

멀리 갈 필요 없다... 지역에 '새바람'

거대한 세계 유통기업 코스트코가 드디어 호남 땅을 밟는다. 수년 간의 설득과 협의, 난관을 넘어 익산이 '호남 1호' 코스트코 유치를 확정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토지 매매계약의 모든 절차를 마친 코스트코 익산점을 둘러싼 지역의 기대와 우려에 대해 설명했다.

▲우여곡절 끝에 찍힌 도장

코스트코 익산 유치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몇 해 전 익산왕궁물류단지 입점을 추진해 온 코스트코는 사업 진척이 더디다는 이유로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소식을 들은 인근 지자체들이 즉각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익산 유치는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정현을 익산시장은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코스트코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강한 유치 의사를 전하고, 3~4개의 대체 부지를 제안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한병도 의원도 시민의 뜻을 대변하며 설득전에 동참했다.

이 과정에서 시 관계자가 다른 지역 입점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본사 출장길에 오르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를 붙잡아 극적으로 마음을 돌린 이야기는 이미 유명하다.

말 그대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좌초 위기에 놓였던 유치가 극적으로 부활했고, 이는 '뒤편까지 한다'는 정 시장의 특유의 집념과 끈기가 빚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이후 시는 코스트코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고, 입점 대상지 토지주와 코스트코 간의 매매계약이 원만히 성사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입점 예정지역은 그동안 코스트코가 추진해 온 방식과 달리 상업 기반 시설이 없는 곳인 만큼 미국 본사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세세하고 지리한 작업이 예상보다 길게 이뤘다. 하지만 마침내 토지주와 코스트코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시는 본격 행정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앞으로 남은 절차와 과제

조만간 코스트코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전 북지치도가 주관하는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된다. 실제 심의까지는 통상 한 달이 좀 넘는 40여 일이 걸린다.

이후 코스트코 측은 시와 함께 대규모점포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시는 △건축심의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의 행정적 절차를 몇 달 내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시는 코스트코 개점 이전에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농·특산물 납품 확대,



정현을 익산시장이 13일 시청에서 코스트코 익산 입점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진행된 코스트코 코리아 투자협약 체결식.

최근 토지 매매계약 모든 절차 마쳐
대규모점포 등록 등 남은 절차 진행
반대 의견도 경청... 시민 이익 최우선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 활력 기대

교통 혼잡 완화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개점 후에는 유류 가격 변동, 상권 영향, 세수 효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 농산물 판매 부스와 같은 상생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반대 의견도 경청... 다만 시민 이익이 최우선

입점 확정 이후 지역 안팎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은 지역 활력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기대하며 지지 기조화견을 가졌고, 외부의 일부 시민 단체와 타 지역 상인들은 '지역 상권 침체'를 우려하며 입점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전국 주요 코스트코 입점 지역 분석에 따르면, 입점 초기 생활밀착형 업종 중



지난해 열린 코스트코 입점 기자회견 모습.



코스트코 입점 과정

심으로 매출 변동과 기업 수 증가 등 단기 변화가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익산과 유사한 상권 구조를 가진 김해시는 코로나 시기 입점했음에도 폐업 증가나 뚜렷한 부정적 변화가 없었다. 이는 일부 우려의 시선과 달리 익산에서도 상생 구조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시는 양측 의견을 경청하면서 다양한 의견들

이 향후 상생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모든 정책은 시민의 이익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뛰어난 접근성... 유통 인구 유입, 지역 활력 기대

코스트코 익산점이 들어설 왕궁면은 호남고속도로 익산나들목과 1번 국도가 인접해 전북뿐 아니라 다른 권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인접해 있는 완주·논산·전주·김제·군산 등과 함께 '코스트코 생활권'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 인구 증가에 따른 관광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왕궁면은 백제의 수도였던 고도(古都)로 왕궁리 5층 석탑과 다양한 문화유적이 자리해 있다. 인근에 위치한 미륵사지도 백제왕궁(왕궁리 유적)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대표적 관광지다.

인근 왕궁보석테마관광지에는 보석박물관부터 대형 실내 놀이시설, 초대형 미끄럼틀, 물 슬라이더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가 풍부하다.

시는 지역 생활 인구가 늘어나면서 코스트코와 인근 관광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상권이 생겨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익산점 개점을 통해 직접적으로는 200여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규 고용으로 발생하는 임금 총액은 연간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수한 복지제도와 경쟁력 있는 임금 수준을 갖춘 코스트코 이직율은 5~8% 가량으로, 유통업계 평균 이직율인 60%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시는 코스트코와 협력·공급업체 등 임금을 통한 직·간접 효과와 지역 내 소비 등 유발효과를 포함해 연간 19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세계적 유통기업 코스트코는?

코스트코(Costco Wholesale Corporation)는 1983년 미국 워싱턴주에서 시작해 현재 전 세계에 87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회원제 창고형 할인 매장이자.

회원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입장이 불가능한 구조다.

카페나 음식점 등 다양한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물론 일반 가정집 소비자들도 연간 회원권을 구매해 대량 구매를 위해 원거리 원정 쇼핑을 다닌다.

집과 가까운 상권과는 기본적으로 소비 패턴이 다른 셈이다. 좋은 물건을 싸게 대량으로 판매하는 전략과 자체 브랜드인 커클랜드 시그니처의 높은 비중을 앞세워 소비자 충성도가 높다.

국내에서는 1994년 첫 진출 이후 현재 수도권 12개, 경상도 5개 등 총 20개 지점이 운영 중이다.

그동안 호남권에는 매장이 없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지역까지 이동해야 했다. 이번 익산 입점은 코스트코가 호남권에 첫발을 디딘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매장은 익산나들목(IC) 인근 왕궁면 일대에 들어서며, 미국식 매장의 특징을 반영해 넓직한 단층 매장 앞으로 커다란 야외주차장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현을 시장의 기대

“코스트코 유치, 익산 미래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

“상생이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키며 책임 있는 행정으로 해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코스트코 입점을 두고 “쉽지만은 않은 길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공을 향해 뚝심 있게 걸어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코스트코 유치는 익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기대했다.

정현을 시장은 “두 번의 부지 선정부터 토지 매매 계약서에 최종 도장이 찍힐 때까지 수많은 난관이 있었다”며 “시민 편익과 지역 발전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위해 포기하지 않았고 시민과 함께 뜻을 모은 결과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부지 선정부터 토지 매매계약 도장까지 쉽지 않았으나 해내 개점 위한 행정적 절차 앞당길 것... 지역상권 상생 방안 준비”

이어 “여기까지는 행정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며 “개점 준비를 위한 토대를 이미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외부 일부 단체가 상권 침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많은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기대하며 지지해주고 있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균형 잡힌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스트코 익산 입점은 단순한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이 아니라, 익산을 넘어 전북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쟁력을 높일 기회”라며 “지역 상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생 모델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